

교회소식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브라스 밴드에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합니다.

4월 첫 주일(3일)부터 9:30 예배를 2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1부 예배 시간은 9:30 - 10:30입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이전과 같습니다. 단 중고등부만 새롭게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 고난주간 기도회가 3월21(월)~25일(금) 저녁 7:30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농도생협에서 유기농 양계장 황토농장(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유정란을 예약주문 받습니다. 유정란 1판에 10,000원, 구운유정란 1판에 13,500원입니다.

주일 공동식사를 할 때 잔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드실 만큼만 받아 가지고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1부	눅 19:28-40	2부	눅 22:39-46
예배	시 118:1,2,19-29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권정연 조장형 박재영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김명희 박명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41-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세-)
 커피 판매 봉사 : 6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사순절 제5주 】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5. 면류관 벗어나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느덧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땅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와 위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땅을 치유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인류가 더 이상 재앙을 자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이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과 국민의 마음을 살피며 정치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갈5:24,25 인도자
- ♣ 교 독 문 128. 사순절(5)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대표기도 조항범 권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442.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 함께
- ♣ 성경봉독 1. 사43:16-21 빌3:4b-14 요 12:1-8 김동호 선생
..... 11. 요 15:18-27 김윤정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대속하신 사랑 참빛찬양대
- 말 씬 1. 고난에 동참하라 김재흥 목사
..... 11. 제자의 길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국지연	권혁순	박해경	김광일	이부용	김대영	이효심	김명희	김미향
김성욱	진해정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운수	김상호	김정민	이혜령	김종철
고영애	김태정	김현주	김혜영	김해진	김훈동	유경순	김문복	민지희	박기성
박석희	조항미	박숙미	박시내	박예림	박옥식	박정윤	백묘현	서수진	성지현
송인선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오민용	원용일	최현선	윤순우	윤영미	윤정득
은종인	이미희	이순용	김신실	이우엘	이응석	이은경	이인성	오송경	이재문
임호성	정두리	정선희	정연주	정원석	김현영	조관행	이홍선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조영순	조지연	주은경	차혜심	노미향	최이오	최은미	한봉섭	한상익
정영선	현진	홍순구	안홍숙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금분	곽정자	권혁순	박해경	김영순	김재흥	최희영	김정근	김지윤	정영우
김한나	김해선	김희우	박옥식	박재영	이현정	서은준	김성나	유상진	유은정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은혜	장영숙	조혜윤	주은경	허호범	박성실	홍민음
무명17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문복순 이재문 조항미 무명17

녹색꿈헌금

김혜진 임설희 허명선 허진영 무명3

숙 명	인도자	모일 곳	숙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유중희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차혜심	청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박숙미	청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조영순	청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박효선	청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김금순	청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오유경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이수정	청파8속	이범석	
나 사 랫	김경혜	안현숙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감나무

감나무 저도 소식이 궁금한 것이다
 그러기에 사립쪽으로는 가지도 더 뺀고
 가을이면 그렇그렇 매달아 놓은
 붉은 눈물
 바람결에 슬쩍 흔들려도 보는 것이다
 저를 이곳에 뿌리박게 해 놓고
 주인은 삼십 년을 살다가
 도망 기차를 탄 것이
 그새 십오 년인데
 감나무 저도 안부가 그리운 것이다
 그러기에 봄이면 새순도
 담장 너머 쪽부터 내밀어 띄워 보는 것이다

- 이재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 양 서해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릇된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의 제자답게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제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동호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배동준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안홍숙 권사	임주빈 권사

3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박석희 이증자 조항미 오자영 이현순
	헌금위원	하현철 권미숙

당신은 한 송이 들꽃

헨리 주조

주님, 당신은 한 송이 들꽃 같으십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은 피어나시지요.
우리가 당신을 손에 넣고 싶어 허리를 굽혀 꺾으려 할 때
당신은 바람결에 날아가시더군요.
우리가 당신을 짓밟아 몽개어 파멸에 이르게 하여도
당신은 다시 소생하시겠지요.
주님, 우리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 **헨리 주조**(1295-1366)는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활동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신비 체험을 한 뒤, 가장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고백했다. 그의 자서전에는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요동치는 하루를 마치고

엘데르 카마라

요동치는 하루가 지났네요.
밤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쑥 불거진 산과 마천루가 흐릿해지고
황홀한 정적에 잠겨 드는 너무나도 고요한 밤의 평화는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낮에 겪어야 했던 불쾌한 일을
곱씹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당했던 일, 쓰라렸던 일, 거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반추동물처럼 되새김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당신의 가없는 선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미움과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손톱만큼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 **엘데르 카마라**(1909-1999)는 브라질 북동부 빈민 지역의 대주교로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그의 묵상집 <주님, 당신 손 안으로>에는 힘없는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다.